

1950년대 스위스에서 나타난 국제적인 디자인 양식으로 스위스 양식(swiss design)으로도 불리며, 데 스틸과 구성주의, 바우하우스, 그리고 뉴 타이포그래피로부터 발전했으며 실제로 '쾰리히'와 '바젤'이라는 두 학교로부터 전파되었다. 교역과 상호 교류의 증가에 따라 2차 대전 이후 고조된 국제주의 정신(internationalism)은 언어 장벽을 넘기 위한 다언어적 체제와 명료한 커뮤니케이션, 세계인이 이해 가능한 픽토그램 등을 요구했으며, 스위스 양식은 시스템으로 확보된 논리정연한 질서감으로 정보에 신뢰성을 더해 주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었다.

이 양식의 시각적 특징은 디자인 요소들을 수학적 그리드에 맞추어 비대칭적으로 구성하여 시각적 통일을 이루고, 헬베티카나 유니버스 활자체로 오른끝 흘리기를 많이 사용하며, 구상적 사진과 문안은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배치하여 시각적, 언어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에른스트 켈러(Ernst Keller), 테오 발머(Theo Balmer), 막스 빌(Max Bill), 안톤 슈탄콥스키(Anton Stankowski), 아민 호프만(Armin Hoffman), 요셉 뮐러-브로크만(Josef Mueller-Brockmann), 카를로 비바렐리(Carlo L. Vivarelli), 에밀 루더(Emil Ruder), 지그프리드 오더마트(Siegfried Odermatt) 등이 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명료성으로 대표되는 스위스 스타일은 그 후 20년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메시지 해독과 이미지 상상, 즉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컨셉이 정해지고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글꼴을 고르는 일이다. 그래픽 디자인에 사용할 글꼴 세트를 구성하는 일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들면 여행을 떠나기 전 날, 여행지에서 활동을 상상하며 자기에게 필요한 옷가지와 신발, 도구를 가방에 챙기는 일과 같다. 등산을 떠나기 위해 구두를 신고 갈 이유가 없으며 파티석에 조강화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의 지면 안에 글꼴 크기가 다른 여러 글을 넣기 위해서는 보통 중요도에 따른 시각적 위계에 따르게 된다. 중요도에 따른 시각적 위계란 지면에서 어느 글이 먼저 읽히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된 글꼴 크기 계층의 구분, 대비를 말한다.

지면에 주어진 여러가지의 텍스트들, 예를들어 제목글, 중간제목글, 본문과 사진설명글, 뽀뽀말 등은 지면에서 시선을 안내하는 표지판 역할을 하여 시선이 적절히 유도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읽혀야 하는 내용과 그 다음의 중요한 내용으로 중요도에 따른 계층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시각적으로 대비가 되도록 활자 크기, 주변 공간의 크기와 컬러, 부가(점, 선, 면 등) 그래픽 요소들을 활용한다.

타이포그래픽 텍스처(texture)는 시각적 위계를 결정하는데 적절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내용부터 유도되는 시선의 흐름을 고려하여 지면에 배치를 하여야 한다. 타이포그래피 요소들 간의 분명한 대비효과를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디자인하게 되

1950년대 스위스에서 나타난 국제적인 디자인 양식으로 스위스 양식(swiss design)으로도 불리며, 데 스틸과 구성주의, 바우하우스, 그리고 뉴 타이포그래피로부터 발전했으며 실제로 ‘뵈리히’와 ‘바젤’이라는 두 학교로부터 전파되었다. 교역과 상호 교류의 증가에 따라 2차 대전 이후 고조된 국제주의 정신(internationalism)은 언어 장벽을 넘기 위한 다언어적 체제와 명료한 커뮤니케이션, 세계인이 이해 가능한 픽토그램 등을 요구했으며, 스위스 양식은 시스템으로 확보된 논리정연한 질서감으로 정보에 신뢰성을 더해 주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었다.

이 양식의 시각적 특징은 디자인 요소들을 수학적 그리드에 맞추어 비대칭적으로 구성하여 시각적 통일을 이루고, 헬베티카나 유니버스 활자체로 오른끝 흘리기를 많이 사용하며, 구상적 사진과 문안은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배치하여 시각적, 언어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에른스트 켈러(Ernst Keller), 테오 발머(Theo Balmer), 막스 빌(Max Bill), 안톤 슈탄콥스키(Anton Stankowski), 아민 호프만(Armin Hoffman), 요셉 뮐러-브로크만(Josef Mueller-Brockmann), 카를로 비바렐리(Carlo L. Vivarelli), 에밀 루더(Emil Ruder), 지그프리트 오더마트(Siegfried Odermatt) 등이 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명료성으로 대표되는 스위스 스타일은 그 후 20년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메시지 해독과 이미지 상상, 즉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컨셉이 정해지고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글꼴을 고르는 일이다. 그래픽 디자인에 사용할 글꼴 세트를 구성하는 일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들면 여행을 떠나기 전 날, 여행지에서 활동을 상상하며 자기에 필요한 옷가지와 신발, 도구를 가방에 챙기는 일과 같다. 등산을 떠나기 위해 구두를 신고 갈 이유가 없으며 파티석에 조깅화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의 지면 안에 글꼴 크기가 다른 여러 글을 넣기 위해서는 보통 중요도에 따른 시각적 위계에 따르게 된다. 중요도에 따른 시각적 위계란 지면에서 어느 글이 먼저 읽히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된 글꼴 크기 계층의 구분, 대비를 말한다.

지면에 주어진 여러가지의 텍스트들, 예를들어 제목글, 중간제목글, 본문과 사진설명글, 뿔뿔말 등은 지면에서 시선을 안내하는 표지판 역할을 하여 시선이 적절히 유도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읽혀야 하는 내용과 그 다음의 중요한 내용으로 중요도에 따른 계층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시각적으로 대비가 되도록 활자 크기, 주변 공간의 크기와 컬러, 부가(점, 선, 면 등) 그래픽 요소들을 활용한다.

1950년대 스위스에서 나타난 국제적인 디자인 양식으로 스위스 양식(swiss design)으로도 불리며, 데 스틸과 구성주의, 바우하우스, 그리고 뉴 타이포그래피로부터 발전했으며 실제로 ‘쾰리히’와 ‘바젤’이라는 두 학교로부터 전파되었다. 교역과 상호 교류의 증가에 따라 2차 대전 이후 고조된 국제주의 정신(internationalism)은 언어 장벽을 넘기 위한 다언어적 체제와 명료한 커뮤니케이션, 세계인이 이해 가능한 픽토그램 등을 요구했으며, 스위스 양식은 시스템으로 확보된 논리정연한 질서감으로 정보에 신뢰성을 더해주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었다.

이 양식의 시각적 특징은 디자인 요소들을 수학적 그리드에 맞추어 비대칭적으로 구성하여 시각적 통일을 이루고, 헬베티카나 유니버스 활자체로 오른쪽 흘리기를 많이 사용하며, 구상적 사진과 문안은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배치하여 시각적, 언어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에른스트 켈러(Ernst Keller), 테오 발머(Theo Balmer), 막스 빌(Max Bill), 안톤 슈탄콥스키(Anton Stankowski), 아민 호프만(Armin Hoffman), 요셉 뮐러-브록만(Josef Mueller-Brockmann), 카를로 비바렐리(Carlo L. Vivarelli), 에밀 루더(Emil Ruder), 지그프리트 오더마트(Siegfried Odermatt) 등이 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명료성으로 대표되는 스위스 스타일은 그 후 20년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메시지 해독과 이미지 상상, 즉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컨셉이 정해지고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글꼴을 고르는 일이다. 그래픽 디자인에 사용할 글꼴 세트를 구성하는 일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들면 여행을 떠나기 전 날, 여행지에서 활동을 상상하며 자기에겐 필요한 옷가지와 신발, 도구를 가방에 챙기는 일과 같다. 등산을 떠나기 위해 구두를 신고 갈 이유가 없으며 파티석에 조깅화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의 지면 안에 글꼴 크기가 다른 여러 글을 넣기 위해서는 보통 중요도에 따른 시각적 위계에 따르게 된다. 중요도에 따른 시각적 위계란 지면에서 어느 글이 먼저 읽히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된 글꼴 크기 계층의 구분, 대비를 말한다.

1950년대 스위스에서 나타난 국제적인 디자인 양식으로 스위스 양식(swiss design)으로도 불리며, 데 스틸과 구성주의, 바우하우스, 그리고 뉴 타이포그래피로부터 발전했으며 실제적으로 ‘취리히’와 ‘바젤’이라는 두 학교로부터 전파되었다. 교역과 상호 교류의 증가에 따라 2차 대전 이후 고조된 국제주의 정신(internationalism)은 언어 장벽을 넘기 위한 다언어적 체제와 명료한 커뮤니케이션, 세계인이 이해 가능한 픽토그램 등을 요구했으며, 스위스 양식은 시스템으로 확보된 논리정연한 질서감으로 정보에 신뢰성을 더해주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었다.

이 양식의 시각적 특징은 디자인 요소들을 수학적 그리드에 맞추어 비대칭적으로 구성하여 시각적 통일을 이루고, 헬베티카나 유니버스 활자체로 오른끝 흘리기를 많이 사용하며, 구상적 사진과 문안은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배치하여 시각적, 언어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에른스트 켈러(Ernst Keller), 테오 발머(Theo Balmer), 막스 빌(Max Bill), 안톤 슈탄콥스키(Anton Stankowski), 아민 호프만(Armin Hoffman), 요셉 뮐러-브로크만(Josef Mueller-Brockmann), 카를로 비바렐리(Carlo L. Vivarelli), 에밀 루더(Emil Ruder), 지그프리트 오더마트(Siegfried Odematt) 등이 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명료성으로 대표되는 스위스 스타일은 그 후 20년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메시지 해독과 이미지 상상, 즉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컨셉이 정해지고 가장먼저 해야할 일은 글꼴을 고르는 일이다. 그래픽 디자인에 사용할 글꼴 세트를 구성하는 일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들면 여행을 떠나기 전 날, 여행지에서 활동을 상상하며 자기에겐 필요한 옷가지와 신발, 도구를 가방에 챙기는 일과 같다. 등산을 떠나기 위해 구두를 신고 갈 이유가 없으며 파티석에 조깅화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의 지면 안에 글꼴 크기가 다른 여러 글을 넣기 위해서는 보통 중요도에 따른 시각적 위계에 따르게 된다. 중요도에 따른 시각적 위계란 지면에서 어느 글이 먼저 읽히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된 글꼴 크기 계층의 구분, 대비를 말한다.

1950년대 스위스에서 나타난 국제적인 디자인 양식으로 스위스 양식 (swiss design)으로도 불리며, 데 스틸과 구성주의, 바우하우스, 그리고 뉴 타이포그래피로부터 발전했으며 실제로 ‘쥘리히’와 ‘바젤’이라는 두 학교로부터 전파되었다. 교역과 상호 교류의 증가에 따라 2차 대전 이후 고조된 국제주의 정신(internationalism)은 언어 장벽을 넘기 위한 다언어적 체제와 명료한 커뮤니케이션, 세계인이 이해 가능한 픽토그램 등을 요구했으며, 스위스 양식은 시스템으로 확보된 논리정연한 질서감으로 정보에 신뢰성을 더해주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었다.

이 양식의 시각적 특징은 디자인 요소들을 수학적 그리드에 맞추어 비대칭적으로 구성하여 시각적 통일을 이루고, 헬베티카나 유니버스 활자체로 오른쪽 흘리기를 많이 사용하며, 구상적 사진과 문안은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배치하여 시각적, 언어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에른스트 켈러(Ernst Keller), 테오 발머(Theo Balmer), 막스 빌(Max Bill), 안톤 슈탄콥스키(Anton Stankowski), 아민 호프만(Armin Hoffman), 요셉 뮐러-브로크만(Josef Mueller-Brockmann), 카를로 비바렐리(Carlo L. Vivarelli), 에밀 루더(Emil Ruder), 지그프리트 오더마트(Siegfried Odermatt) 등이 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명료성으로 대표되는 스위스 스타일은 그 후 20년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메시지 해독과 이미지 상상, 즉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컨셉이 정해지고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글꼴을 고르는 일이다. 그래픽 디자인에 사용할 글꼴 세트를 구성하는 일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들면 여행을 떠나기 전 날, 여행지에서 활동을 상상하며 자기에게 필요한 옷가지와 신발, 도구를 가방에 챙기는 일과 같다. 등산을 떠나기 위

해 구두를 신고 갈 이유가 없으며 파티석에 조깅화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의 지면 안에 글꼴 크기가 다른 여러 글꼴을 넣기 위해서는 보통 중요도에 따른 시각적 위계에 따르게 된다. 중요도에 따른 시각적 위계란 지면에서 어느 글이 먼저 읽히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된 글꼴 크기 계층의 구분, 대비를 말한다.

지면에 주어진 여러가지의 텍스트들, 예를들어 제목글, 중간제목글, 본문과 사진설명글, 뽀뽀말 등은 지면에서 시선을 안내하는 표지판 역할을 하여 시선이 적절히 유도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읽혀야 하는 내용과 그 다음의 중요한 내용으로 중요도에 따른 계층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시각적으로 대비가 되도록 활자 크기, 주변 공간의 크기와 컬러, 부가(점, 선, 면 등) 그래픽 요소들을 활용한다.

타이포그래픽 텍스처(texture)는 시각적 위계를 결정하는데 적절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내용부터 유도되는 시선의 흐름을 고려하여 지면에 배치를 하여야 한다. 타이포그래피 요소들 간의 분명한 대비효과를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디자인하게 되면 독서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지면의 구성도 흥미롭게 된다. 어떤 잡지에서 제목을 찾기 어렵거나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어렵도록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시각적 위계 구조가 명확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글줄정렬에는 다섯가지 기본적인 방식이 있고, CJK 언어권에는 내려쓰기 방식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양끝 맞추기justified, 왼쪽 맞추기(오른쪽 흘리기)ragged right, 오른쪽 맞추기(왼쪽 흘리기)ragged left, 가운데 맞추기centering, 엇갈리기asymmetric, 내려쓰기(세로쓰기)

글줄의 오른쪽과 왼쪽을 맞추는 방식으로 글줄 배열의 가장 흔한 방법이다. 모두 같은 길이의 글줄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단의 왼쪽과 오른쪽

1950년대 스위스에서 나타난 국제적인 디자인 양식으로 스위스 양식(swiss design)으로도 불리며, 데 스틸과 구성주의, 바우하우스, 그리고 뉴 타이포그래피로부터 발전했으며 실제적으로 ‘쥘리히’와 ‘바젤’이라는 두 학교로부터 전파되었다. 교역과 상호 교류의 증가에 따라 2차 대전 이후 고조된 국제주의 정신(internationalism)은 언어 장벽을 넘기 위한 다언어적 체제와 명료한 커뮤니케이션, 세계인이 이해 가능한 픽토그램 등을 요구했으며, 스위스 양식은 시스템으로 확보된 논리정연한 질서감으로 정보에 신뢰성을 더해주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었다.

이 양식의 시각적 특징은 디자인 요소들을 수학적 그리드에 맞추어 비대칭적으로 구성하여 시각적 통일을 이루고, 헬베티카나 유니버스 활자체로 오른끝 흘리기를 많이 사용하며, 구상적 사진과 문안은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배치하여 시각적, 언어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에른스트 켈러(Ernst Keller), 테오 발머(Theo Balmer), 막스 빌(Max Bill), 안톤 슈탄콥스키(Anton Stankowski), 아민 호프만(Armin Hoffman), 요셉 뮐러-브로크만(Josef Mueller-Brockmann), 카를로 비바렐리(Carlo L. Vivarelli), 에밀 루더(Emil Ruder), 지그프리트 오더마트(Siegfried Odermatt) 등이 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명료성으로 대표되는 스위스 스타일은 그 후 20년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메시지 해독과 이미지 상상, 즉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컨셉이 정해지고 가장먼저 해야할 일은 글꼴을 고르는 일이다. 그래픽 디자인에 사용할 글꼴 세트를 구성하는 일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

과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들면 여행을 떠나기 전 날, 여행지에서 활동을 상상하며 자기에게 필요한 옷가지와 신발, 도구를 가방에 챙기는 일과 같다. 등산을 떠나기 위해 구두를 신고 갈 이유가 없으며 파티석에 조깅화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의 지면 안에 글꼴 크기가 다른 여러 글을 넣기 위해서는 보통 중요도에 따른 시각적 위계에 따르게 된다. 중요도에 따른 시각적 위계란 지면에서 어느 글이 먼저 읽히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된 글꼴 크기 계층의 구분, 대비를 말한다.

지면에 주어진 여러가지의 텍스트들, 예를들어 제목글, 중간제목글, 본문과 사진설명글, 뿔뿔말 등은 지면에서 시선을 안내하는 표지판 역할을 하여 시선이 적절히 유도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읽혀야 하는 내용과 그 다음의 중요한 내용으로 중요도에 따른 계층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시각적으로 대비가 되도록 활자 크기, 주변 공간의 크기와 컬러, 부가(점, 선, 면 등) 그래픽 요소들을 활용한다.

타이포그래픽 텍스처어(texture)는 시각적 위계를 결정하는데 적절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내용부터 유도되는 시선의 흐름을 고려하여 지면에 배치를 하여야 한다. 타이포그래피 요소들 간의 분명한 대비효과를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디자인하게 되면 독서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지면의 구성도 흥미롭게 된다. 어떤 WW잡지에서 제목을 찾기 어렵거나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어렵도록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시각적 위계 구조가 명확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글줄정렬에는 다섯가지 기본적인 방식이 있고, CJK 언어권에는 내려쓰기 방식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양끝 맞추기 justified, 원